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과기원 협력 추진

- 연구중심대학 선도모델로서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20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4대 과학기술원* (이하 ‘과기원’) 총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ST)

이번 간담회는 지난 '23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대 과기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부터 4대 과기원이 연구중심대학의 선도모델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과기원과 소통을 바탕으로 과기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과기원의 기관운영 현황과 목표뿐 아니라 공동으로 발굴한 과제들이 안전으로 다루어졌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4대 과기원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토대로 국가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확보체계를 수립하는 방안과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제도 정착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 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장비의 신속도입·공동활용 등을 과기원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기반의 R&D연구가 촉진될 수 있는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예산 활용과 중장기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안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R&D 혁신방안이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창윤 제1차관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기관운영 목표와 비전, 추진전략에서 여타 대학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과기원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과기원 간 협력과 특성화를 실현하여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놓고 경쟁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이 되어달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도 주도적으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해달라”며,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붙임 :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계획(안)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연웅 (044-202-4830)
		담당자	사무관	노승은 (044-202-4833)

□ 개요

- (일시/장소) '24.3.20(수) 09:30 ~ 11:00 /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 과기정통부 차관, 과기원 총장 등 20여명
 - (과기정통부) 제1차관, 미래인재양성과장 등
 - (과기원) 4대 과기원 총장 및 기획처장 등
 -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기타) STEPI 실무담당자 등
- (주요내용) 과학기술원 혁신방안 주요과제(안) 및 주요현안 논의

□ 세부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09:30 ~ 09:35 (5)	◆ 인사말씀 및 소개	- 차관님 - 과기원 총장
09:35 ~ 10:05 (30)	◆ 과기원 혁신방안 주요과제 발표	
10:05 ~ 10:55 (50)	◆ 자유 토론	
10:55 ~ 11:00 (5)	◆ 마무리말씀	- 차관님